

2022. 12. 14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12월 14일 오전 6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실장	최재연	2290-6121
팀장	유홍선	2290-6123
담당자	이수호	2290-6124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://www.sisul.or.kr">www.sisul.or.kr</a>	

### 서울시설공단, 현장 근로자 위한 휴게공간 개선한다

- 현장 환경 전수조사 토대로 내년까지 열악한 110개 휴게공간 개선 추진
- 재충전 가능한 공간으로…집기류·환기설비 확충하거나 새롭게 공간 만들어
- 한국영 이사장 “현장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곧 더 나은 시민 서비스로 연결 될 것”

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)은 지하도상가, 장애인콜택시 등 300여곳에 달하는 현장의 환경을 전수 조사한 후 열악한 휴게공간이 많다고 보고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.

○ 공단은 지하도상가, 장애인콜택시, 자전거관리센터 등 시민접점에서 일하는 청소, 운전, 관리 직원의 휴게장소가 열악한 곳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재충전이 가능토록 추진 중이다.

○ 이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민 편의 제공 및 안전을 지키는 직원을 존중, 배려해야 편의와 안전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

- 현재까지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현장은 ▲서울 지하철상가 19곳 ▲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11곳 ▲공공자전거 따릉이 자전거관리센터 8곳 등 46개소이며, 올 연말까지 18개소를 더하여 총 64개소가 새로운 환경으로 거듭날 예정이다.
  
- 휴게공간 개선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춰 ▲ 옷장 등 집기류 구비 ▲ 장판 및 바닥재 교체 ▲ 냉난방기 및 샤워실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, 휴게공간이 없는 곳은 사업장 내 유휴공간 활용이나 인근 장소 임대를 통해 새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
- 특히 공단은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간을 이용할 직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.
  
- 공단은 올해 한국영 이사장 취임 직후인 7월부터 공단 현장 306곳을 전수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92개소와 신규 조성이 필요한 18개소 등 총 110곳을 선정했고,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.
  
-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최전선의 현장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”라며 “약자 동행의 관점에서 모든 사업과 환경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바뀌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## 〈관련사진〉

-공공자전거 이수지역센터 휴게실

